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
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
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
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우리 모두 한주머니서 공부하는 중”

17면에서 계속

는 천신계라 해도 좋는데 그 돌이 돌 아
나게 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체를 내탕으로 풀
려서 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양면을
다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죽어야 나를 본다

죽어야 나를 본다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러 가는 사람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하고 언
제 죽은 세상의 맛을 보겠습니까? 그래
서 마음이 죽으라고 했습니다. 몸이 죽으
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거기다가 놓
고 일일하면 마음은 죽는 것입니다. 그것
이 바로 무의 세계에 저승길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죽은 사람의 이

될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스
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그것은 우리가 전체-그 무위세계
에서 자유자재하는 그런 일과는 달
리 한발 내려놓고 나선 경계로서 유위세
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공이라든가 또
는 무술이라든가 이런 것 만으로는 분명
한 한계가 있어서 결코 부처님 경지 속
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 지금 심성과학연구원들을 두고 연구
하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
체를 주인공 자리에서 다 일임하면서 이
해가 되고 믿음이 가서 돌이 아니게 통
할 수만 있다면, 연구를 하되 거기서 다
연구를 하게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고 날고 하는 그런 몸으로
만 한다면 만약에 보이지 않는 데서 물
동이를 들고 와서 때려도 막을 수가 없

“다가오는 경계 고통으로 생각 말고 한생각 돌려 극락세계를 맞보세요 이 공부에 표미가 있습니다”

치를 모른다면 지금 산 사람을 어떻게
견집니까? 어떤 사람이 현재 고통을 받
고 산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과거로 돌
아갈 줄 알아야 그것을 지우고 다시 나
올 수 있죠.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비구니
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고 하는 분도 있
지만 비구니든 비구든 모습만을 보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습은 보지 마라. 모습은 천차만별로
바뀌는 까닭에 어떤 절로 바뀌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 여자
다 남자가 따지지 마라. 모습은 각각이나
마음이야 어찌 같지 않느냐.” 하고 말입
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
오는 경계를 고통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한 생각 돌림으로써 극락세계를 맞볼 수
있는 표미가 이 공부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정진하셔서 모두가 이
불기둥 하나에서 나오는 이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조스님과도 돌이 아
니오 일체제불과도 돌이 아닙니다. 진리
는 하나지 돌이 아닙니다. 진리는 공한
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기공공부가 유행입니다

☞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강의하
고 있고 정신과학회 회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정신과학에 대해서 저희 과학자들이 생
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연구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기공과학이
나 인체과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중
요인들이 나와서 일반인들한테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행법 중에 기공이나
인체과학들이 도교나 혹은 불교에서 나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교에서 나온
수행법을 가르치는 분들도 마음의 근본
자리가 하나지 돌이 아니고 하면서 불교나
도교를 통해서 끝까지 가는 자리가 같은
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초능력들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과학자가 연구해
야 되고, 이런 과학들을 연구하는 나라가
앞으로 강국이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의 이런 세계적인 조류가 단순히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인지, 아니면 앞으
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미래
의 국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학문으
로서 자리잡아 그 나라 국력의 척도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차례차례로 입
력된 것이 운명처럼 풀려 나오는 데는
그것은 도저히 막아 낼 수가 없는 것입
니다. 지금 로켓이 뜨고 이리저리 데 그것들
몸으로 해서 얼마나 막아지겠습니까? 만
약 로켓이 잘못돼서 우리들 전체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다면 내가 로켓이 왜
전체를 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물에 들
어가면 용신이 돼야 하고, 어떠한 흑성이
든지 지구에 와서 부딪친다 이럴 때는
내가 그 흑성이 왜야 하고, 이러한 문제
등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지금 이
몸이 있는 동안이라고 해서 이 몸으로만
대처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끌어 가는 삶은
몰라서 그렇지 실은 세세생생 끝없이, 우
주에 발판은 두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실체가 그렇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특히
연구하는 이들은 잘한다 못한다 배운다
안배운다 하는 것을 부지런히 뛰어넘고
연구를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한다고
는 생각치 않아야 합니다. 자기 불성인



그림 · 최주현

서 한꺼번에 물록 뇌버리지 왜 이렇게
히나하나 놓느라고 고생을 하나 이런 마
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록 뇌라, 물
록 뇌라’ 는 소리를 계속 외치고 다녔더
니 갑자기 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죽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에 다시 나왔습니다.

☞ 하고 일어나세요.
내가 쓸모가 없다면 그만 옷을 벗겨
갈 것이고 아직 쓸모가 있다 하면 좀더
살게 할 거예요.
하여튼 공부하는 과정에는 내가 놓
다고 의식하는 것도 욕심이나 놓는
는 생각없이 그냥 놓고 ‘너만이 할 수

그게 진짜 보배예요.

언더달라 독일포고 어려워

☞ 저는 독일지원에서 법행정 총무
를 맡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머나
먼 독일 땅에까지 불법을 전해주시는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독일
에서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독일 신도와 한국 신도간에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그 독일 땅에 많
은 불법을 전할 수 있을지 가르침 바랍니다.

☞ 그럴 때는 연기법이 들어갑니다.
☞ 왜냐하면 독일 신도와 한국 신도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못할 때는 바로 상
대방과 나와서 주인공은 돌이 아니라는

걸 보지 않고 배울 수 있으며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더불어 같이,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같이 살고 배우니 마음도 없고
고을 것도 없고 나와 더불어 돌 아
는 항상 즐기게끔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자 운명이나 하는
말들을 하는데 팔자 운명이 따로 없습
니다. 집착이 없다면 고(苦)도 없고, 멸
(滅)도 없고 도(道)도 없습니다. 그대로
내가 움켜쥐려고 사는 자체가 바로 도에
요.

불사때 많은 인연이 도와

☞ 독일에서 불사를 하면서 느낀 조
은 그마한 체험을 한가지 말씀드리겠
습니다. 거긴 법당이 즐비 때문에 수영장
을 개조해서 넓혔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동서남북 흩어져 있다해도 ‘한주머니’ 이 도리 모르면 자유권 얻을 수 없고 생사윤회서 벗어날수도 없습니다”

☞ 그것을 알고 관하면 상대쪽의 주인공이
내 쪽의 주인공으로 합쳐져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터득되고 마음이
통해집니다. 다른 말로 영혼의 근본이라고
다 지어서 내놔요. 예를 들어 개구리를
가서 공부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
라서 마음으로 관하며 ‘너만이 빨리 하
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도 깜짝
놀랄만큼 어학실력이 늘고 지금은 몇 개
국어를 한답니다.

☞ 그 뜻은 영혼끼리 아는 겁니다. 말은
보는 사람들과 하지만 뜻은 영혼과 영
혼이 말을 하고 다니게 하기 때문에
빨리 알아지죠. 말은 다를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부처
님께서도 당시 마음의 그 본심을 이들을
다 지어서 내놔요. 예를 들어 개구리를
하나 건질때도 내가 개구리가 왜야 개구
리를 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다 정엄
하시고, 장엄했다는 것은 결국 흡수했다
는 얘기죠.
부처님께서는 팔상성도로서 사무사유

일이 덕질 때마다 좋은 인연들이 나타나
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바
로 한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구
나. 참 묘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주인공의 나름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 법당을 꾸미는데 누가 와서 들본
다고요? 그것이 무슨 뜻이나 하면
요, 부처님의 마음이 분신되어 그쪽
사람들 중 할 만한 사람이려면 거길 돌
게 돼 있습니다. 심 리 밖이라도 쫓아오
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나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이 공부해서 이
도리를 안다면 더욱 좋은 일이지요.

☞ 불교라는 말도 있고 불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불법이란 건 상대성 원리로서
의 불법이라고 했고, 불교라는 것은 바로
생명과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
나면 금방 아는 게 아니라 길러져 어른
이 되면서 삶을 알고 가는 겁니다.

☞ 불(佛)은 일체 생명의 근본을 불이라
고 하고 교(敎)는 바로 우리가 행하고
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
면서 배우고 지혜가 생기고 잘못되고 잘
되고를 알게 되고 이렇게 자주 배우기
때문에 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 불교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교가
어디 따로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
아요. 불교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인간으
로 태어났다면 필연적으로 하고 가야 할
공부인데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공기주머니 속에서 살지만 돌아가는 이
치가 모두 불교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
어느 한군데 국한돼서 따로 있는 게 아
닙니다.

☞ 하여튼 우리가 지금 부처님 자리에
한 자리를 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한 주머니 속에 한자리
를 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갔다 해서 한자리 아닌 것이 아
니고 외국으로 떠났다 해서 한자리 아닌
것이 아닙니다.

☞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다 해도 한 주
머니이며, 이 마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자
유자재권을 얻을 수도 없고 생사윤회
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열반도 살아서 열반인 줄 알
아가지 죽어서 열반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
닙니다.

☞ 그러듯이 생사윤회도 살아서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기만 해서도 아니됩니다.
벗어나고도 자유롭게 들고 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찬
나에 우우에도 가고 달에도 가고 다시
지구로 들 수도 있는 그런 이치 말입니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내가 옷을 벗고
도 자유롭게 즉 용도에 따라서 또는 차
원에 따라 소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 모습으로 지금과 똑같
은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말
씀드린 것처럼 바깥으로 쓰달리지 않
는 것이 바로 업사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세상 모든 생명의 근본 우리 마음에 가설” “사람이 생사를 버린다면 두려울게 없어요”

☞ 주인공이 바로 자기 동물을 움직여
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더군다나
몸통이 속에 생명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가 자기가 했
다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수박을 겉으로 얹는 격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수박의 맛을 봤다고 하
겠습니까.

놀다보니 두려움 생겨요

☞ 저는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사회적으로 명예도 없고 싶었고 이
것 저것 갖고 싶은 것도 많았었는데, 지
금은 주인공을 붙잡고 가는 속에서 밖으
로의 관심이 줄어들며 점점 안으로의 관
심이 높아졌습니다.

☞ 요즘 공부하면서 놓고 가는 중에 매일
매일 무엇이 튀어나올 때는 너무 귀찮아

☞ 죽어야 본다고 그랬는데 왜 나와
요? 아니 지금 죽으나 늙어서 죽으
나 죽는 건 마찬가지로 내 몸통이 공
해서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스
스로의 마음이, 내가 죽으면 어쩌하나 하
는 마음 때문에 걸림없는 데로 도달을
못했지 않습니까? 사람 사람이 모두가
생사를 버린다면 두려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죽든 말든 그냥 버렸는데
무엇이 겁이 납니까? 본래 진리가 버리
고 가는 겁니다.

☞ 본래 내가 없고 버려져 있는데 주인공
의 시자로서 몸통이를 움직여지면서 다
닐 뿐이지 내가 아니다 이겁니다. 살았을
때 내가 내가 아님을 알아야 되고, 참나
와 거지나가 돌이 아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나는 정신계고 거지나는
물질계란 말입니다.

☞ 정신계가 있어도 물질계가 보이지 않
으면 무효고, 물질계가 있어도 정신계가
없으면 그것 또한 무효예요. 그러니 서로
합쳐야만 100%가 된다 이 소립니다. 그
러니 내가 살겠다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저항력을 길러서 당당히 뛰세요. 하되 합
이 없는 것이니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하면 ‘주인
공,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그렇게 뛰세요.

☞ 또 의욕이 없을 때는 ‘의욕이 있게 하
는 것도 너 아냐’ 하고 웃으며 관하고
의욕있게 생각하게 만들고, 화가 나면
‘화 안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너 아냐’ 하
고 가고,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지지가 하
고 있을 때는 ‘네 몸을 일으키는 것도 너 아

있어’ 하고 뛰어보세요.

집에 악귀가 있는것 같아...

☞ 제가 얼마전에 이사를 갔는데 스
님의 설명 중에서 ‘이사를 가게 됐
을 때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있어. 그
러나 서로 한마음이 되어 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돼.’ 라고 하신 말씀이 생
각 나서 그렇게 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
는데 우연인지 저희 어머니님과 짐사람이
조금씩 아프고 저도 좀 시름시름 아팠습
니다. 어느날 저희 집에 일하러 오신 아
주머니의 얘기가 자기는 생령을 받은 사
람인데 저희 집에서 안좋은 악귀가 있어
서 집에 이상한 냄새가 나고 사람이야
아프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회의를 다니면
서 ‘악마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물러
간답니다.

☞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이라고 맞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
깨비 장난과 같다고 부처님도 예수님도
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인과로써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에는 항상 자기 주인공 자리에서 그랬으
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돌이 아니게 생
활을 한다면 스스로 없어져요. 쉽게 말해
서 인과가 없다면 그렇게 양자를 양기
때문에 전자에 살던 그사람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과 돌이 아니라는 뜻을 알면
되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관
한다면 몽땅 하나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
까 모든 것을 어떠한 게 닦아내려도, 내
가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심곳이 웃고
놓으면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 가 돌 아나게 일대사의 인연을 맺은 뜻
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전
체,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우주 삼천大千
세계 모두를 한데 합쳐서, 내 아님이 하
나도 없고 내 도량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할 아님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
다. 그러니 무엇을 내세워서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
다.

☞ 독일에 가서도 비디오회화 때 빠지
지 마시고 나름대로 생각을 동글게 모가
나지 않게 하세요. 그 위력은 중간 가운
데 쓸만합니다. 말이 너무 깊어서 그냥
이렇게 ‘쓸만합니다’ 이라는 겁니다. 너
무 깊어서 풀이 안나는 말이지요.

☞ 그리고 할나할나에 부처님 생각이 날
때는 할나에 부처님이 하나가 돼 주거든
요. 이 세상 사람이 다 한 태도 다 그
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제불도
우리를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 그
러죠. 이 세상 일체 생명의 근본도 모
두 가슴이 돼 있거든요.

☞ 근본은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성을 깨
우친다는 말을 씁니다. 우리들이 살아나
는 중에 아무리 모자라고 못난 것일지
라도 일체 만물이 없다면 내가 어찌 그

법찬 주인공

**삶은 결코 썩가 아니라는
이 통쾌한 역설!**

삶의 모든 고통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발판임을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大行 스님의 육성 법어집

A5신 288쪽 값 6,000원

어시아문 중로구 경지동 110-33
737-8881(편집), 737-0695(영업), 팩스 (02)737-0696